

# 日 언론 “징용해법 과제 남아…총선 결과는 불안 요인”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 1주년을 맞아 일본 언론이 해법 발표가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됐지만, 일부 원고의 해법 거부 등 과제도 남아 있다고 7일 진단했다.

일부 언론은 역사 문제가 한쪽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에 과거를 직시하는 자세와 성의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6일 승소가 확정된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회고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배상금을 준다는 '제3차 번째' 해법을 발표했고, 실제로 일부 원고 측에 이 방법으로 배

상금을 지급했다.

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징용 해결책을 계기로 한일 정상 간 신뢰가 깊어졌다”며 “해결책 발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미 7회 회담해 신뢰 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년간 한일 관계가 무풍 상태는 아니었다”라며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철거와 히타치조선이 한국 법원에 맡긴 공탁금 지급 등 양국 여론이 반발할 수 있는 사안이 있었지만,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요미우리는 “양국 정상은 서둘러 외교를 가속해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

“한국 여당 패배하면 양국 관계 해법 비판 거세질 것”

“日, 과거 직시 중요…관계 강화 위해 지혜 짜내야”

고 있다”며 “기시다 총리 3월 방한은 이뤄졌지만, 총리는 주변에서 ‘윤 대통령을 지원하게 된다면 인제는 방한한다’는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일부 원고가 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고 징용 소송에서 승리하는 원고가 늘어나는 등 과제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재단은 배상금에 상당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아사히신문도 “해결책 이행이 순조롭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작년 연말 이후 비슷한 소송 9건에서 승소한 원고는 50명을 넘고, 재단 자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별도 사실에서 한국에만 해법 이행을 촉구하는 일본 정부를 향해 진일보한 행동을 보일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아사히는 사실에서 “역사 대립의 극복에는 부단한 노력과 성의가 필요하다”며 “그 원점을 잊지 말고 일본도(한일) 관계를 되돌리지 않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 일본 측에 “징용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과거를 직시하는 자세를 계속해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강제징용 배상금 조달 동참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와 기업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돼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징용 해법이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본 기업의 참여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 美, 가자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에 100여건 무기 판매

정밀유도탄·폭탄 등 각종 살상무기 다량 제공

수만명이 목숨을 잃고 천문학적 재산 피해로 고통받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급습 이후 이스라엘에 모두 100여건이 넘는 개별 무기 판매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7일(현지시간) 당국의 의회 비공개 보고를 인용, 가자 전쟁 발발 이후 미국 정부가 개별적으로 이스라엘에 무기를 판매한 건수가 100여건을 넘어선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수천 개의 정밀 유도탄과 소구경 폭탄을 비롯한 소형 무기, 각종 살상 무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WP는 “이스라엘의 민간인 살상에 대한 우려가 미국 내부에서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다른 한쪽에서는 편중된 무기 지원이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자 전쟁 이후 공개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정부의 무기 판매는 모두 1억6000만달러 규모의 탱크 포탄과 1억4천700만달러 상당의 포탄용 부품 제공 등 2건에 불과하다.

이를 놓고도 바이든 행정부는 긴급 권한을 발동해 의회의 허용을 피해가 논란을 야기해 왔다.



음식 배급소에 몰려든 주민들 계속되는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라파에서 국제 구호단체가 제공한 음식을 받으려는 주민들로 붐비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현재까지 가자지구 사망자수는 3만7177명이지만, 만약 전염병이 돌고 확진 시엔 8만8천여명의 사망자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AP=연합뉴스

나머지 100여건의 무기 판매는 일정 금액을 넘지 않아 의회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규정을 준수했으며, 의회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과 관련해 200번 이상 대화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료 출신인 제레미 코닌니크는 이에 대해 “매우 짧은 기간에 이례적으로 많은 무기 판매”라며 “이는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이

같은 미국의 지원이 있어야 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력히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6주간 휴전 인질 석방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하마스의 명단 제공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150일을 넘기며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상자 수는 10만명을 넘었다고 하마스 측은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자지구의 식량 구호 트럭에 몰려든 사람들이 수백명 다치고 사망하는 사태까지 발생, 인도주의 위기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올해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방침을 초지 일관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아랍계와 진보, 젊은층이 등을 돌리며 지지층 분열로 골치를 앓고 있다.

/연합뉴스

## 산꼭대기에 ‘특수 덮개’ 씌우는 베네수엘라

안데스산맥 내 ‘최후 얼음조각’ 사수 안간힘

남미 베네수엘라가 산악 지대에 남은 ‘최후의 빙하’ 사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6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환경 당국은 최근 안데스 산악지역 메리다주(州)의 시에라네바다 국립공원 내 훔볼트 빙하(라 코르나)를 지키기 위해 특수 섬유 고분자 소재(지오텍스타일)로 만든 덮개를 고산 지대에 씌어달랐다.

강한 태양 광선에 빙하가 녹아버지 않도록 만든 이 덮개는 30개의 조각으로 구성돼, 당국은 조각당 80kg 무게에 달하는 것들을 해발 4천900m 높이 정상 부근까지 옮기는 데 공군 헬기 2대

와 100여명의 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헤이손 구스만 메리다 주지사는 지난해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빙하를 둘러싼 바위에 내리쬐는 태양 광선을 줄여 마지막 빙하가 녹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썼다.

현재 이 덮개가 실제 빙하 주변에 덮인 상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빙하 감소는 기후 변화로 인한 전 세계적 현상으로 주목되지만,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조금 더 심각하다. 산악 빙하를 완전히 잃게 되는 최초의 국가로 이름을 올릴 수 있어서다.

/연합뉴스

## 경선서 TV토론 보이콧 했던 트럼프…바이든에 토론 제안

미국 대선 공화당 경선에서 대선 후보직을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선에서 ‘리턴매치’를 벌일 것이 확실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토론을 제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슈퍼화요일(16개 지역 동시 경선) 다음날인 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스페에 올린 글에서 “조 바이든과 내가 미국과 미국민에 매우 중대한 의제들을 놓고 토론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중요하다”고 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그래서 나는 언제, 어디, 어느 장소에서든 토론하자고 (바이든에게) 요구한다”고

적었다.

특히 그는 “토론은 부패한 민주당 전 국무위원회(DNC) 또는 그들의 자회사인 대선토론위원회(CDP)가 진행할 수 있다”며 “나는 (바이든의) 반응을 고대한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방송사들이 주관한 후보 TV토론을 모두 보이콧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의 마지막 남은 경쟁자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슈퍼 화요일 경선 후 사퇴함으로써 6일부로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지었다.

/연합뉴스

제사나라 [www.jesanara.com](http://www.jesanara.com)

##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http://www.jesanara.com)

##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 안전기원제 고사  
▶ 시 제 상  
▶ 제 사 상  
▶ 고 사 상

제사나라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부페